

# Kohut의 자기애적 분노의 성경적 해석: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자녀의 분노를 대상으로

이 은 성\*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자녀들의 분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Kohut의 자기애적 분노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성경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과 분노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자녀들의 분노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아울러 일반적인 분노해석의 한계를 자기애적 분노의 개념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분노를 표현하고 치방하는 방법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성경적 적용과 치료에 대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성경 인물을 대상으로 Kohut의 자기애적 분노해석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공감에 대한 실패와 자기결핍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애적 분노의 대상을 과대화된 자기와 이상화된 부모로 인식함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자기애적 분노의 대상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내재적 자기 대상은 하나님임을 강조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성령이 충만한 인간의 영적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자기대상이 됨을 제안한다. 나아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자녀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코헷의 자기애적 분노, 가정폭력, 자기대상, 하나님의 분노, 분노 대상

• 논문 투고일: 2017년 9월 26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11월 1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4일

\*충신대학교

## I. 여는 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펼쳤을 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가정 폭력으로 인한 아동학대 사건이다. 이러한 이슈가 되고 있는 2016년 아동학대 사건 사례를 정리해보면, “인천 11살 학대 소녀 탈출사건”, “부천 초등학교 토막시신 사건”,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 “부천 2개월 여아 학대 방치 사건”, “평택 실종 아동 원영이 사건” 등이 있으며<sup>1)</sup> 2017년에는 폭행으로 인해 두 팔과 다리, 늑골이 골절되고 오른쪽 안구를 들어낸 ‘지호사건’<sup>2)</sup> 등 현재에도 많은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5년 1만 9천214건에서 2016년 2만 9천669건으로 54.4%를 증가했다.<sup>3)</sup> 가정폭력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공감보다는 부모로부터 냉정한 반응이나 거부를 당하기 쉬우며 이러한 양육태도는 분노를 쉽게 일으키게 된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학대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폭력 안에서 자라는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sup>4)</sup>

가정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분노는 양육환경에서 시작되는 유아시절부터 잠재된 분노이므로 자기가 구축되기 시작하는 출생부터 유아시절

1) 네이버, “2016년 아동학대 사건 · 간편 정리”, (2016년 3월 16일); 2017년 8월 23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blog.naver.com/karmilo18?Redirecdirect=Log&logNo=220656111078>.

2) 김성규, “판사도 놀란 5세 실명, 살인 맞먹는 학대에 18년형”, 「조선일보」 2017년 7월 28일, 10.

3) 경기일보, “명드는 동심SOS, 학대신고 60%급증”, (2017년 3월 29일); 2017년 8월 23일 접속, 해당 사이트: [www.kyeonggi.com/?mod=new&act=articleView&idxn0=1332006](http://www.kyeonggi.com/?mod=new&act=articleView&idxn0=1332006).

4) 홍기순,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3호(2006): 149-168.

의 자기애적 분노로 해석하는 것은 분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Kohut은 자기애적 자기가 응집된 자기 구조로 발달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정상적인 발달로 가지 못하고, 자기 구조가 붕괴되면서 병리적인 성격과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자기애적 분노는 자신을 비판했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대한 강한 보복이며, 잘못된 것을 바르게 바꾸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취소시키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sup>5)</sup> 또한 Kernberg도 자기애적 분노에 대한 Kohut의 이론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가 냉정하며, 자신을 공감해 주지 않고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 분노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동자신에 대한 특성, 분노, 그리고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를 만들게 되는데, 이 방어는 이상화된 어머니상과 통합하여 과장된 자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sup>6)</sup> 그 과장된 자기는 공허감, 타인에 대한 정서적 결핍, 편집증적으로 투사된 분노가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타인으로부터 거부되었다는 것을 알 때 유아기 때의 분노가 재 활성화된다는 것이다.<sup>7)</sup> Kohut의 이론에 의하면 자기애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처로 받게 된 고통스러운 실패경험을 지우고자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고 하였다.<sup>8)</sup> 따라서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은 자기애적 상처를 가지게 되고 이 실패경험은 분노의 감정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자기애와 자기

5) 김정옥, “나르시즘에 대한 이해: 개념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학생연구』 제32권 (1997): 43-59.

6) Otto F. Kernberg,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New York: Jason Aronson, 1976), 235-250.

7) 강일선 · 오경자, “자기애와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5), 8.

8) Heinz Kohut,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1), 231.

개념의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들이 있으며 성경적 관점에서 “분노감정에 관한 목회상담학적 의미고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경적 상담”, “분노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연구” 등의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가정폭력과 분노의 내면적 자기분석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를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분노에 대한 내면적 자기분석의 차원에서 근원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Kohut의 자기애적 분노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경험 자녀의 분노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가정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분노를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치료해야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 II. 펴는 글

### 1. 가정폭력과 자녀의 분노

####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Kashani에 의하면, 가정폭력(family violence)의 일반적인 정의는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학대 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9)</sup> Hines와 Malley-Morrison는 가정 폭력의 유형을 아동학대, 배우자학대, 노인학대로 분류하였다.<sup>10)</sup> Wallance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폭력행

9) J. H. Kashani & W. D. Allan, *The Impact of Family Viol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8), 2-3.

10) D. A. Hines & K. Malley-Morrison, *Family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Defining, Understanding, and Combating Abuse* (Thousand Oak, CA.: Sage, 2005), 2-27.

위의 형태에 따라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였으며 피해자는 한 형태의 폭력만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1)</sup> Wallace은 폭력 유형을 세 가지로 말하였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폭력이란 신체적인 위협을 포함한 모든 폭력적 행동들이다. 두 번째, 정서적 폭력이란 이치에 맞지 않고 강한 말로써 상대방의 감정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며 많은 언어적 폭력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적인 폭력이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고 하는 모든 성적인 행동과 동의 없이 요구하거나 무례하게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그 영향도 다양하다. 아동학대 중에서 신체적인 학대에 의한 영향으로는 신체뿐만 아니라 의료적 문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장애나 애착과 자존감문제, 사고 발달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sup>12)</sup> 뿐만 아니라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행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정서문제,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학대받은 자녀들은 가정의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관계를 갖고자 한다. 또한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을 부정적인 존재로 보려고 한다. 불안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ADHD)나 공격성 행동장애로 가기가 쉬우며, 사고와 추리능력(특히 언어능력, 기억능력, 일반적인 사고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sup>13)</sup> Sroufe에 의하면 학대 받은 아동은 학대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다고 하였다.<sup>14)</sup>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 되면, 공감

---

11) H. Wallace, *Family Violence: Legal, Medical, and Social Perspectives* (Boston, MA.: Pearson, 2005), 4-25.

12) 박은미,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15), 25-26

13) 박근혜, "성장기 가정폭력에 노출된 기혼 남성의 대처과정"(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11), 20.

능력이 결여되며, 공격성 및 충동성, 반사회성, 수동성 및 무력감 등의 정신적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받는 영향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약하여 대처하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Romito는 이탈리아의 경우 부모에게 학대 받았던 여성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경향성이 높았고, 이혼하거나 직업도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출생률이 감소하고,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2) 가정폭력 경험과 자녀의 분노

가정폭력에 있어 다양한 형태와 영향이 존재하지만, 어느 경우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 것이다. 가정 내의 폭력에 노출된 자녀는 노출되지 않은 대상에 비해 내면적, 외현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되며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영향은 분노의 한 형태로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데, 사회학습이론에서는 Bandura가 말한 관찰학습 모델링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공격성이란 직접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것으로만 획득하는 것이 아닌 관찰하거나 모델을 접하는 간접적인 경험으로도 획득할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것과 부모 간 폭력 행위를 관찰하면서 경험되는 것들이 공격성에 기인한

14) L. A. Sroufe, "The Role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eds. J. Belsky & T. Nezworski(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18-38.

15) P. Romito, M. Crisma & M. Saurel-Cubizolles, "Adult Outcomes in Women who Experienced Parental Violence during Childhood," *Child Abuse & Neglect* 27(2003): 1127-1144.

다고 보았다.<sup>16)</sup> 이는 가정 내에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은 부적 모델링에 있어서 공격행위를 모방하거나, 잠재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남아 있다가 같은 모델을 보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어떤 공격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목격하면 흥내 내고자 하는 충동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결과의 모방은 환상에 사로잡혀 쾌감이나 영웅심을 가지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sup>17)</sup>

사회학습이론이 노출된 공격성에 대한 학습이라면, 외상이론은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외상이론은 DSM-VI에서 불안장애로 보고 있으며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강한 공포를 느끼고 무기력한 증상을 보인다.<sup>18)</sup>

욕구좌절이론에서는 공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격성은 목표성취를 위한 욕구가 환경적인 방해로 인해 활성화 되는 것을 의미하며, 좌절은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좌절의 결과가 공격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발산을 하게 되면 공격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정화의 가설과 전이된 공격이라는 개념의 가설을 지지한다. 특히 낮은 연령에서는 좌절된 사건에 대해서 공격성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개인특성이나 가정환경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심리적인 갈등과 욕구불만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분노로 표출된다. 분노는 어떻게 표출하는지에 따라 긍정적 정서가 되든지, 부정적 정서가 된다. 분노는 그 자체보다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 지에 대한 과정이나 그 결과로 인하여 분노의 정적 인식이 강한 것이다.<sup>19)</sup>

16) 박근혜, “성장기 가정폭력에 노출된 기혼 남성의 대처과정”, 13-14.

17) 이정애,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대학원, 2014), 26-29.

18) 박근혜, “성장기 가정폭력에 노출된 기혼 남성의 대처과정”, 16.

19) 오중은, “학교폭력가해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2012), 16-17.

또 다른 이론으로 가족체계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있어서 부부체계라는 상위체계가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동, 즉 하위체계인 자녀들에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가족 내에 있는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의 아동은 공포나 슬픔을 느끼거나 행동적이고 정서적인 반응들에 있어서 부적응적인 패턴을 보이게 된다. 가족체계이론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보고 있으며 주 양육자와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육의 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부부 사이의 폭력은 아이가 건강하게 양육되기에 어려운 환경이며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강요적인 패턴으로 발달하게 된다.<sup>20)</sup> 강요적인 패턴의 상호작용은 아이로 하여금 공격성을 일으키게 된다.

## 2. Kohut의 자기애적 분노 해석

### 1) 분노의 개념

분노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고영인은 분노라는 것은 정서적인 성가심, 또는 짜증에서 격분을 느끼는 등 그 강도가 다르며 불쾌한 정서 상태를 가리키며, 생리적으로는 교감 신경계의 각성, 근육의 긴장, 아드레날린의 분비 등을 수반한다. 또한 분노는 대상에 대한 보복, 비난, 공격 등이 포함된 사고 등의 인지적 요소와 함께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행동적인 측면까지도 포함된다고 하였다.<sup>21)</sup>

Krasner와 Solomon은 생리적인 차원에서 분노를 정의하였다. 분노는 사소한 짜증이나 곤혹감으로부터 강한 격분 혹은 격노까지 이르는 다양

20) 박근혜, “성장기 가정폭력에 노출된 기혼 남성의 대처과정”, 17.

21) 고영인, “대학생의 분노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1994), 11-17.

한 강도를 가진 정서 상태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Sharkin은 정의적, 생리학적, 운동적, 인지적 요소들 간에 상호작용이 포함되는 내적 상태를 분노라고 하였다.<sup>22)</sup> Averill은 정서를 충동적 정서, 갈등적 정서, 자아붕괴까지 포함한 초월적 정서라고 구분하였고, 분노는 생물학적으로 사회생활, 공격체계, 상징화, 자기인식과 연관된 갈등적 정서의 하나라고 보았다.<sup>23)</sup>

한편, Rothenberg는 분노는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로서 연속적으로 다단계구조를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보았다.<sup>24)</sup> 분노는 파괴나 공격성이 아닌 불안에 있어서의 대안이거나 방어인 자기표현이며, 변형된 의사소통방식이라는 것이다. Spielberger 외는 분노의 경험으로 상태분노(state anger)와 특성분노(trait anger)라고 구분하여 설명했다.<sup>25)</sup> 상태분노는 자율신경계의 흥분 또는 활성화를 동반하는 일시적인 정서 상태이며, 특성분노는 분노를 얼마나 자주 일으키는가 하는 개인의 분노경향성을 말한다.<sup>26)</sup> 상태 분노는 좌절하거나 모욕이나 부당성을 느끼거나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공격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특성분노는 개인에게 있는 성격적인 특질들로 인해 상태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들보다는 분노를

---

22) B. S. Sharkin, "The Measurement and Treatment of Client Anger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1988): 361-365.

23) J. R. Averill,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1982), 6-18.

24) A. Rothenberg, "On Ang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8, no. 4(1971): 454-460.

25) C. D. Spielberger, E. H. Johnson, S. F. Rusell, R. J. Crane, G. A. Jacobs, & T. J. Worden,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 Disorders*, eds. M. A. Chesney & R. H. Rosenman(New York: Hemisphere.1985), 5-30.

26) 이규미,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분석"(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98), 7.

자주 일으키게 된다.

Spielberger는 분노 표현 방식을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 분노통제(anger-control)라고 구분하였다.<sup>27)</sup> 첫째, 분노표출(anger-out)이라는 것은 신체적,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노를 통제하지 않고 외현화 하여 표출하는 것이다. 예로 비난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언어적인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분노억제(anger-in)라는 것은 화가 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분노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말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분노를 일으킨 원인에 대한 사고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내적으로 스트레스나 고통을 심하게 경험하는 분노 표현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분노통제(anger-control)라는 것은 타인에게 냉정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분노의 행동적 정서적 표현을 조절하는 특징을 가진다.<sup>28)</sup> 분노상태를 인지하고 감독하여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는 분노표현방식이다. 빠르게 냉정을 유지하여 내부의 분노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상황과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이를 적당하게 표현하고 행동할 시기와 방법을 찾는 것이다. 분노 억제 표현 방식의 경우 정서적, 인지적으로 각성된 상태는 유지하면서 행동적 반응만을 억압하려는 방식이라면, 분노 통제 표현방식은 각성 수준을 낮추면서 공격적이거나 역기능적인 반응양상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분노 통제 표현방식이 기능적이고 적응적인 표현방식이라면, 분노 표출과 분노 억제 표현 방식은 부적응 적이고 역기능적인 표현방식임을 구분할 수 있다.

27) C. D. Spielberger,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 Inc., 1988), 2-27.

28) 이은주, “청소년 분노경험과 분노표출방식의 관계에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2007), 7-8.

## 2) Kohut의 자기애적 분노

앞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분노들은 분노에 대한 정서적, 신경 생리적, 적응적 측면에서의 해석으로의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노의 시발점과 뿌리 깊은 인간의 자기라는 것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Kohut이 이야기 하고 있는 자기의 개념으로 시작된 자기애적 분노에 대한 해석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Kohut에 의하면 자기애적 자기는 정상적인 발달단계에서 자기 구조의 응집적인 발달이 실패하고 자기 구조가 붕괴하게 되면 병리적인 성격이 형성되며 공격행동이 표현된다고 보았다. 자기애적 장애라는 핵심병리는 자존감을 유지하는 내적 구조의 부재와 자기 응집성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Kohut의 자기애적 현상은 타인이 자기에게 주목해주기를 바라는 것, 비현실적인 자기도식, 타인을 적절하지 못하게 이상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자기애적 분노란 자신을 비판하는 대상에게 강하게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싶은 욕구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취소시키려는 욕구를 표현한다.<sup>29)</sup>

자기애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에 대한 그 힘든 실패의 현실을 지워버리고자 분노를 드러낸다.<sup>30)</sup> Kohut에 의하면 분노는 자기애적 욕구가 이상화 자기에 대한 위대하고 전능한 자기대상(self object)으로부터 공감적인 반응을 받지 못했을 때, 자기의 구조적 결핍으로부터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예로 아기의 욕구에 대해 부모가 최적의 공감적 반응을 함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하는데, 충족되지 못하면 아기의 자기는 자기애적 상처를 입는 것이다. 이는 타고난 아기의 건강한 자기주장성이 파괴적인 공격성을 띠게 되며 이것이 분노로 표현된다.

여기서 파괴적인 공격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일차적 요소들이 아닌 자

29) 김정옥, “나르시즘에 대한 이해: 개념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43-59.

30) Kohut, *The Analysis of the Self*, 231.

기대상의 공감적 실패로 생긴 이차적 반응임을 강조했다. 자기에적 분노라는 것은 자기에적 상처로 인하여 표현된 공격성 안에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욕구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 욕구이며, 그들의 잘못에 대해 바로 잡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처받은 것에 대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욕구는 자기에적 분노의 특징이다.

이상화된 부모의 상실로 인하여 아이가 외상을 경험할 경우, 아이에게 최적의 내재화는 일어날 수 없다. 이때 적절한 구조가 발달할 수 없으며, 아이는 심리구조의 부재된 곳을 메우기 위해서 자기-대상에서의 전이 관계를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아이는 내적인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아이 정신은 강한 대상을 갈망하게 된다. 즉, 상실된 심리구조를 메우기 위해 원초적 자기-대상들을 강렬하게 추구하고 의존한다. 아이는 실제 대상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에 형성되지 못했던 정신 기구의 부분적인 기능을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상은 아니다. 아이는 대상에 있어 행동이나 성격의 실제적인 특징들을 희미하게 인식할 뿐이지 대상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sup>31)</sup> 이들에게는 뿌리 깊은 공허감, 타인에 대한 정서적 결핍, 편집증적으로 투사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이후에 성인기에 있어서 타인에게 거부되는 경험은 이러한 유아기의 분노를 재 활성화 시킬 수 있다.<sup>32)</sup>

### 3) 자기에적 분노의 표현과 처방

홍이화는 자기에적 분노의 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sup>33)</sup> 첫째는 억압으로 표현된다. 보복적 분노가 외부 대상에게로 향하지 못할 때

31) Kohut, *The Analysis of the Self*, 45-46.

32) 강일선 · 오경자, “자기에와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5), 8.

33) 홍이화, 『하인즈 Kohut의 자기심리학 I』(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144-148.

분노는 무의식적으로 억압된다. 억압의 방법으로 분노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는 분노를 적극적인 공격성으로 드러내지 않고 매우 수동적인 공격성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방어적 형태는 분노의 느낌과 감정 자체를 달아버리고 차단시켜버리는 또 다른 분노의 형태로 나타난다. 분노의 억압은 자기의 상처로 인한 분노가 외부로 표출되지 못하고 만성화 되며 이러한 형태들은 좌절과 우울감을 가지게 된다. 증상으로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손톱을 물어뜯거나 하는 아이들의 행동이나 한국문화의 화병은 자기애적 분노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는 자해와 자살로 연결되기 쉽다는 것이다. 온전한 자기 구조를 구축하지 못해 부서진 자기의 부분들, 고통스러운 자기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자기 신체를 거부하고 부정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자기 파괴적 충동을 야기시키고 그 충동은 자살이나 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살이라는 것은 온전한 자기구조형태의 자기로 살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가 자기애적 분노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Kohut의 자기애적 분노는 과대적 · 과시적 자기와 이상화된 부모로부터 시작되기에 그 처방 역시 두 가지 과정의 회복을 포함한다. 첫 번째, 아이는 자신의 존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 주목받고 싶어 하며, 인정과 관심과 찬사를 받기를 원하는 자기애적 욕구를 가진다. 부모는 이러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충분한 찬사를 줌으로써 아이의 과대적 · 과시적 자기주의의 욕구가 충족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애적 욕구가 아이에게 충족되는 동안 자기는 자신 있고 가치 있고 힘 있는 존재로 경험된다.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초기 응집력이 없었던 자기는 응집력을 가지게 되는 자기로 변형되는 것이다. 또한 원시적인 과대적 · 과시적 자기주의는 조절되게 되고 좀 더 현실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자존감 혹은 자기감으로 성숙해 간다. 그러나

초기의 과대적·과시적 자기주의가 공감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애적 상처가 만들어지고 고착이 생긴다. 따라서 개인의 과대적·과시적 자기주의는 발달과정과 성숙 과정을 이어가지 못하고 원시적인 형태 그대로 남게 된다. 아이의 자기는 충분한 응집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파편화되기가 쉬운 취약한 자기로 남아 있게 된다. 두 번째, 아이는 부모를 이상화하여 그 이상화된 대상으로부터 공감 받고 보호 받음을 경험함으로써 강한 힘을 느끼게 된다. 현실에서 피하지 못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좌절 경험들에 직면했을 때 무력감과 공허감을 느끼기 보다는 강한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자기대상들과의 연합이 유지될 때 강하고 안전함을 느낀다. 아이는 자기와 이상화된 부모상을 동일시하게 되고, 이상화된 부모상을 자신에게 내면화하여 자기 이상(self ideal)으로 만들게 된다. 자기 이상은 아이가 살아가면서 가치 있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상화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었거나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아이는 결국에는 자아 이상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고 목적의식 없이 낭비하게 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

### 3. 자기애적 분노의 성경적 해석과 적용

#### 1) 성경적 분노

현대사회는 분노사회라고 할 정도로 분노는 이미 일상생활에 만연해 있다. 이 세상은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상황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동시에 분노의 대상이 된다.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을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려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가 600여건 이상 언급되

는데, '분노'라는 단어는 450회 이상 나오고, 그중에 375회나 하나님의 분노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sup>34)</sup>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으며,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해 분노하시는 장면이 등장한다.<sup>35)</sup> 이관직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인간의 악이 가득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에 분노하셨고, 레위기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 분노하셨다.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한 것에 분노하셨고, 이사야 1장에서 해리적인 종교생활에 대해 분노하셨다.<sup>36)</sup> 이처럼 분노는 성경 신구약에서 인간, 하나님, 예수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으나 인간의 분노와 예수님, 하나님의 분노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분노와 달리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죄와 경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윤리적인 반응을 말한다.<sup>37)</sup>

## 2) 성경적 인물분석을 통한 자기애적 분노해석

성경적 인물들은 분노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을 자기애적 분노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에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다. 그 중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

34) 오윤선, “청소년 분노조절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4권(2010): 20.

35) 서요한, “기독교 청소년의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2017), 26.

36) 이관직, 『성경과 분노심리』(서울: 대서, 2015), 20-30.

37)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역,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서울: 두란노, 2008), 186.

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의 나이 60세에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양육되었을 확률이 높다. 자기애적 분노는 양육 환경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는 양육태도는 에서에게 있어 자기대상으로부터 공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는 환경을 양산하게 된다. 이는 자기의 구조적 결핍의 원인이 된다. 그 결과 창세기 27장에서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한다. 에서의 분노는 자기애적 분노 안에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에게 복수하고 싶은 욕구,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잘못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욕구에 의한 그의 울부짖음이 분노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서의 분노는 자기애적 분노의 표현이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분노로 해석 된다.

두 번째, 성경인물의 예로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혼재했던 모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갓난아이들 중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은 죽이라는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렸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모세는 부모에 의해 3개월을 숨겨져 양육되다가 강물에 띄우게 되고, 바로의 딸에 의해 발견되어 그녀에 의해 키워진다. 어린 이 된 모세는 어느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며, 이에 분노하여 이집트인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모세의 분노가 표출된 사건이다. 아버지의 부재와 친모의 짧은 양육은 그에게 충분한 자기대상으로써의 공감을 받고 자라기 어렵고, 자기의 강한 응집력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모세의 양육환경은 자기의 구조적 결핍의 원인이 되어 내재된 분노가 형성되고, 결국 살인사건을 발생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과 동족인 히브리인에 대한 이집트인의 폭력을 보고 올라온 복수하고 싶은 욕구와 응징하고 싶은 욕구가 자기애적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

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바뀌게 된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목이 곧아지는 교만을 보면서 모세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후 산을 내려온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정되고 응집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후에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두 돌 판을 던져 깨뜨린다. 돌 판을 깨뜨린 사건은 인간의 죄와 경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윤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노로 모세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된 것이다. 모세의 두 사건을 볼 때 복수에 의한 인간의 감정적 분노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향해 경건치 못하는 것에서 오는 윤리적 반응의 거룩한 분노를 비교할 수 있다. 모세가 자기애적 분노에서 거룩한 분노로 전환 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자란 유아시절에 비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경험하므로 건강하고 응집력 있는 자기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자기애적 분노에 대한 성경적 해석

Kohut의 자기애적 분노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Kohut은 앞서 분노가 전능함에 대한 자기애적 욕구가 자기대상으로부터 공감 받지 못하여 생기는 자기의 구조적 결핍을 원인으로 보았다. Kohut은 자기대상을 과대화된 자기와 이상화된 부모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내재적 자기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과대적 · 과시적 자기를 자신이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성령이 충만한 인간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자기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자기대상을 가지고 계셨기에 윤리적 반응의 분노인 건강한 분노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Kohut의 자기애적 분노는 자기대상의 공감적 실패로 인해서 이차적으로 나타난 반응이며 이에 따라 그가 주장하는 자기애적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과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자기(*grandiose and exhibitionistic self*), 다른 하나는 부모를 존경스럽고 전능한 자기 대상(*admired, omnipotent self-object*)의 이미지로 자기 자신과 융합할 수 있는 이상화된 부모상(*idealized parent image*)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을 가지지 못한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공감결핍이 일어난다. 보상의 개념으로 아버지나 또 다른 대상의 공감을 통해 보상받고 건강한 이상화된 부모상이 일어날 수 있으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은 이 또한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자기를 받아줄 만한 사회적 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에 있으며,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이상화된 부모상은 각종 입시와 경쟁체제로 인해 뒤틀리게 된다는 점이다. Kohut의 자기애적 분노의 처방적 대안이 건강한 자기를 응집 적으로 자기로 변화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충분한 대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정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늘고 만연하면서 과대적인 자기의 발달이 저해되고 이상화된 부모상은 심하게 뒤틀리는 일이 다반사이기에 처방적 대안으로 기능하기에 한계가 많다.

Kohut은 자기의 장애라는 문제가 어떤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포함한 모든 정신병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는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방향설정으로 이어진다. 앞서 Kohut은 건강한 자기(*self*)를 응집적(*cohesive*) 자기로 표현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여기서 응집적 자기는 스스로의 정서 상태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 파편화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Kohut은 건강한 자기 형성을 위해 과대적·과시적 자기주의의 욕구에 대해 공감적인 반응을 제공해주고, 자신을 이상화시키는 아이들의 시도를 수용해 주고,

이상화된 대상으로서 아이를 과도하게 실망시키지 않고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이상화된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상화된 대상으로 인식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부모는 인간이기에 아이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상화된 부모상에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바람직한 이상화된 부모상은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과 체험적 지식이 동반된 영적 부모상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인정받고, 관심 받고, 찬사 받고 싶어 하는 자기애적 추구가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때 과대적·과시적 자기의 욕구를 건강하게 충족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기애적 추구에 대한 공감반응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건강하게 충족되는 것이 건강한 자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육적인 부모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한 분노의 씨앗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앞서 Kohut의 시각으로 바라본 자기애적 분노의 대상을 성경적으로 해석했다면, 이하에서는 성경적 인간관에서 바라보는 자기애적 분노는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김준은 성경적 인간관에 대해 하나님, 동료인간, 자연과의 관계성이라는 삼중적 관계성을 설명한다.<sup>38)</sup>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으며 이는 관계성에 대한 인간의 존재와 죄인인 인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관계론 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Kohut 역시 자기결핍으로 생긴 자기애적 분노를 해석하는 데 있어 관계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에 관계가 불안정 할 수밖에 없음을 간과했다.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된 대상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38) 김준, "Heinz Kohut의 인간이해와 기독교 상담",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권 (2013): 21.

인간은 죄인이기에 불안정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죄인이기에 불안정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관계형성에서도 자기애적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인간관에 있어서 자기(self)에 대한 Kohut의 강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만든다. 자기를 강조할수록 인간은 불안정 할 수밖에 없고 자기에 집착하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닌 죄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 될 때 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동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sup>39)</sup>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할 때 동기는 변화되며 변화된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때 관계의 회복은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이루어 질 때, 동료인간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있는 심리적인 결핍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져야함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기억할 때 알 수 있다.<sup>40)</sup> 가정폭력의 아픔과 그로 인해 쌓인 자기애적 분노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길 때 회복될 수 있다.

39) Heath Lambert,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김준 역, 『성경적 상담의 핵심개념』(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92.

40) 이주하, “분노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극복방법”(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대학원, 2015), 19.

#### 4) 자기애적 분노의 성경적 해석에 대한 적용 및 치료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자녀들의 자기애적 분노를 치료하기 위한 성경적 기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기애적 분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가 있어야 한다. 이순자는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중년 크리스천 여성의 분노경험연구”에서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sup>41)</sup>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한다는 것이며 성경묵상과 예배를 드림으로써 상한 마음에 대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들을 치료받았던 경험들은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고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는 부모로부터 결핍된 자기애를 부모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과의 교제 즉, 기도와 성경묵상,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도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은 결핍된 자기애를 인간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핍된 대상에 대한 보상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자기대상을 응집시킬 수 있으며 자기를 건강하게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자녀들의 자기애적 분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분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Mark P. Cosgrove는 분노감정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 해결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sup>42)</sup> 잠언 16장 32절과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 하라는 말씀과 예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진실하게 말하는 것, 잠언 19장 11절 말

41) 이순자,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중년 크리스천 여성의 분노경험 연구”,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3권 3호(2012): 175-201.

42) Mark P. Cosgrove, *Counseling for Anger*, 김만풍 역, 『분노와 적대감』 (서울: 두란노, 1997), 97-116.

씀에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분노라는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으로 억압하는 역기능적인 표현방식보다는 적응적이고 기능적인 분노통제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자기애적 분노의 표현방식 중에 하나로 억압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 분노의 표현방식 중 억압은 우울과 화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억압이 아닌 더디게 하라는 지언을 표현하고 있다. 노하기를 더디 하라는 것은 분노를 각성하고는 있으나 분노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분노를 뒤로 지연시키고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며, 상황과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라는 것이다. 더디게 하라는 것은 분노의 원인들을 자각하고 통찰하는 시간을 통해 말씀을 적용할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감정의 지연은 부정적 표현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인지된 감정은 승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말씀에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지연 과정을 통해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적용을 통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될 것이며 용서를 통해 분노가 성화되는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자녀들의 자기애적 분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돌봄이 필요하다. 문희경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품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품었던 사역들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43)</sup>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을 품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교회공동체에서는 분노에 관련된 세미나교육, 지속적인 교회 내에서의 관계유지가 필요하다. 교회가 분노를 죄라고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와 같은 건강한 분노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교회의 돌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교회 안에서 개인 상담이나 집단상담, 자조모임, 세미나교육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되도록 돌봐줄 필요가 있다

43) 문희경,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상담』(서울: 대서, 2007), 220-250.

현재 교회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예비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정사역등 관계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계에 앞서 나, 그리고 내 안의 자기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강한 자기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며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통찰과 탐색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깊은 공감을 받을 때 강한 응집력으로 자기가 형성 될 수 있으며 건강한 자기가 된다. 이러한 공감을 받기 위해 교회공동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폭력 경험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은 최소단위인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공감이나 위로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경우는 가장 먼저 신고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정폭력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안전지대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교육 세미나나 자조모임을 통한 집단치료, 전문훈련들을 통한 치료과정이 필요하며 교회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지원해 주는 곳이어야 한다.

### III. 닫는 글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자녀들의 분노에 대한 해석을 Kohut의 자기에적 분노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성경적 해석과 적용 및 치료를 고찰해 보았다. Kohut의 자기에적 분노는 공감 결핍으로 인한 자기구조 결핍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자녀들은 일반적인 가정의 부모보다도 더 깊은 공감적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적 결핍은 자기애적 분노를 야기시킨다. Kohut은 자기애적 분노의 치료를 부모나 다른 보상적인 대상으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받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치료 측면에서 자기애적 분노에 대한 성경적 해석과 적용은 자기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 응집되지 못한 자기구조 결핍의 치료는 건강한 대상을 인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회복될 때 치료될 수 있다. 이는 이상화된 부모상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 다른 시각인 성경적 인간관에서 바라보는 자기애적 분노는 인간관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며 불안정한 상태인 인간은 자기애적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인간의 불안정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안전할 수 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 돼야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변화된다. 가정폭력의 아픔과 그로 인해 쌓인 자기애적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질 때 회복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분노에 대한 성경적 인물의 예시를 통해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차이를 언급하였다. 인간은 복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죄와 경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윤리적인 반응인 거룩한 분노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자녀들의 분노에 대해 치료하고 이를 성경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분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셋째, 교회의 돌봄이 필요하다.

먼저,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성도들을 교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신고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학대 경험이 있거나 학대 받은 경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인 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세미나 및 교육을 실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돌봄이 이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자녀들의 분노에 대해 Kohut의 자기애적 분노와 성경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집중하였으며, 기독교 상담 장면에서도 가정 폭력 경험이 있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향후 다양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뒤따른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일선·오경자. “자기애와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제6권 1호(2006): 606-607.
- 고영인. “대학생의 분노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1994.
- 김성남. “분노감정에 관한 목회상담학적 의미고찰”.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2004.
- 김정욱. “나르시즘에 대한 이해: 개념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학생연구』 제 32권(1997).
- 김준. “Heinz Kohut의 인간이해와 기독교상담”.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권(2013): 9-35.
- 문희경.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상담』. 서울: 대서, 2007.
- 박경순. “코헛과 자기심리학”.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제9권 1호(2009): 129-141.
- 박근혜. “성장기 가정폭력에 노출된 기혼 남성의 대처과정”.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11.
- 박은미.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9.
- 박진형.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경적 상담”.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2010.
- 서요한. “기독교 청소년의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2016.
- 오윤선. “청소년 분노조절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4권(2010): 9-34.
- 오종은. “학교폭력가해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이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2013.
- 이관직. 『성경과 분노 심리』. 서울: 대서, 2015.
- 이규미.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98.

- 이서원 · 한지숙. “아동학대경험과 분노표출이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5호(2011): 71-80.
- 이순자.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중년 크리스천 여성의 분노경험 연구”.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3권 3호(2012): 175-201.
- 이은주. “청소년의 분노경험과 분노표현방식의 관계에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2007.
- 이정애.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대학원, 2014.
- 이주하. “분노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극복방법”.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대학원, 2015.
- 홍기순.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3호(2008): 149-168.
- 홍이화. 『하인즈 Kohut의 자기심리학 I』,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 최천혁. “분노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연구-보웬이 가족치료 이론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대학원, 2010.
- Averill, J. R.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1982.
- Collins, G. R. *Christian Counseling*.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역.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 2008.
- Cosgrove, Mark P. *Counseling for Anger*. 김만풍 역. 『분노와 적대감』. 서울: 두란노, 1997.
- Hines, D. A. & Malley-Morrison, K. *Family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Defining, Understanding, and Combating Abuse*. Thousand Oak, CA.: Sage, 2005.
- Kashani, J. H. & Allan, W. D. *The Impact of Family Viol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8.
- Kernberg, O. F.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ason Aronson, 1976.
- Kohut.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1.
- Lambert, Heath.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김준역. 『성경적 상담의 핵심개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 Powlison, David. *Anger*. Phillipsburg, NJ.; P & R, 2000.
- Romito, P., M. Crisma & M. Saurel-Cubizolles. "Adult Outcomes in Women who Experienced Parental Violence during Childhood." *Child Abuse & Neglect* 27(2003): 1127-1144.
- Rothenberg, A. "On Ang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8, no. 4(1971): 454- 460.
- Sharkin, B. S. "The Measurement and Treatment of Client Anger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1988): 361-365.
- Spielberger, C. D., E. H. Johnson, S. F. Russell, R. J. Crane, G. A. Jacobs, & T. J. Worden.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 Eds. M. A. Chesney & R. H. Rosenman. New York: Hemisphere, 1985, 5-30.
- Spielberger, C. D.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 Inc., 1988.
- Sroufe, L. A. "The Role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Eds. J. Belsky & T. Nezworski.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18-40.
- Wallace, H. *Family Violence: Legal, Medical, and Social Perspectives*. Boston, MA.: Pearson. 2005.
- 네이버. "2016년 아동학대 사건 · 간편 정리". (2016년 3월 16일). 2017년 8월 23일 접속. 해당 사이트: <http://blog.naver.com/karmilo18?Redirecdirect=Log&logNo=220656111078>.
- 김성규. "판사도 놀란 5세 실명, 살인 맞먹는 학대에 18년형". 「조선일보」 2017년 7월 28일, 10.
- 경기일보. "명드는 동심SOS, 학대신고 60% 급증". (2017년 3월 29일). 2017년 8월 23일 접속. 해당 사이트: [www.kyeonggi.com/?mod=new&act=articleView&idxno=1332006](http://www.kyeonggi.com/?mod=new&act=articleView&idxno=1332006).

【 Abstract 】

An Exploration of the Biblical Perspective on  
Kohut's Narcissistic Anger  
: Focusing on the Anger of Children with the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Eunsung Lee  
Chongshin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a biblical perspective on Kohut's narcissistic anger to understanding the anger of children with the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This study attempts to adopt the concept of Kohut's narcissistic anger to better understand anger. Kohut's narcissistic anger is employed to explain the anger of biblical figures.

It is found that there has been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men's anger and God's anger. The children with the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are likely to bring about impaired expression. They generally fail in sympathy with others and suffer from self-deficit, which comes from recognizing grandiose self and idealized parent-image as an object of anger.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an object of narcissistic anger should be changed into God, not man. In these contexts, it is emphasized that an internal selfobject of men should be God, as a man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 desirable selfobject comes true only through a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God, which includes being filled with Holy Spirit and holding the communion with G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support that a church community will be abl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the anger of children with the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leading to true problem solving.

**Key words:** Kohut's narcissistic anger, family violence, selfobject, God's anger, an object of anger